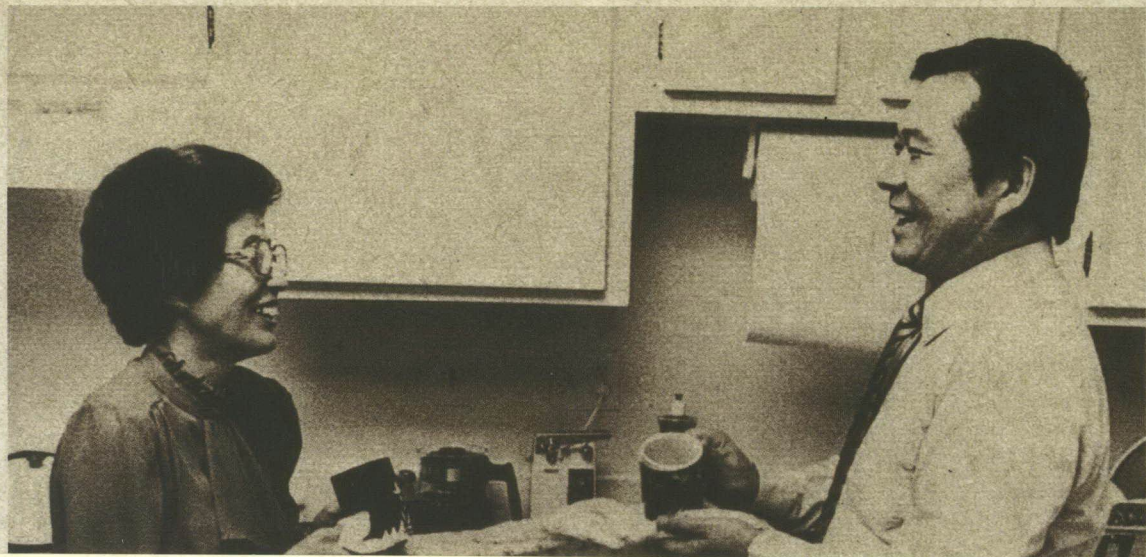




이희호자서전 동행

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이희호 지음

퍼스트레이디 최초의 신산했던 삶과 순정한 꿈의 기록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적인 동지이며 삶의 동반자 이희호,
파란곡절로 아로새겨진 삶 속에서 희망을 길어내다

“나의 지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동시에 언제나 희망의 줄과 연결된 축복의 순간들이었다”

《이희호 자서전 '동행'》은 격동의 세월을 헤쳐 나온 이희호 여사의 도전과 사랑, 희생의 삶을 생생히 담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성 지도자의 꿈과 고뇌, 한 정치 지도자와의 운명적 동행이 가져온 이쁨과 희망, 그리고 겸허한 신앙인으로의 성숙 과정은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또한 이 여사가 전하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영부인으로서의 책임담은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에 대한 또 하나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화합과 포용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청년 김대중에게 정치가 꿈을 이루는 길이며 존재 이유였다면,
나에게는 남평평등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 중의 하나였다.
서로가 공유한 꿈에 대한 신뢰가 그와 나를 동여맨 끈이 되었다.

**낮과 밤이 뒤섞인 한국 현대사의 가장 내밀한 기록이자,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동반자로 살아온 46년의 기억**



글을 시작하며 나의 삶, 나의 기도 5

1장^{1922~1962} 격동의 땅, 부푼 향학열

따습고 행복했던 유년 13 | 이화고녀 시절 16 | 위기의 이화여전, 그리고 해방 24 | 서울
대 사범대와 '면학동지회' 30 | 전쟁과 유학의 길 37 | 매력적인 여성, 엘리너 루스벨트
49 | 교수의 길 버리고 YWCA로 52

2장^{1962~1972} 만남과 결혼, 그리고 파란곡절

책벌레, 김대중 65 | '엄마'와 '사모님'으로 74 | 한일 국교 정상화 82 | 사랑하는 아버지!
86 | 7대 목포 총선은 전쟁이었다 89 | 40대 대통령 후보 김대중 95 | '개표'에서 진 1971
년 대통령 선거 102 | 두 번째 사선, 교통사고 110 | 동교동 문패, 金大中-李姬鎬 117

3장^{1972~1980} 유신, 칠흑 어둠에 갇혀

제2의 쿠데타 125 | '납치'에서 생환하다 133 | 의인, 정일형과 이태영 141 | 암호명 '한
복', 3·1 민주구국선언문 152 | "민주주의가 죽어서 곡을 합니다" 158 | 진주교도소 170
| 부마 항쟁 178 | 박 대통령, 비명에 지다 182

4장^{1980~1985} 짧은 봄, 긴 겨울

빼앗긴 '서울의 봄' 193 | 새빨간 거짓말, '김대중 내란 음모' 200 |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208 | "대중이를 살려줘" 218 | 전두환 대통령과 독대하다 227 | 환난 중의 입시생 232 | 감옥에서 만난 《제3의 물결》 237 | 사형수에서 망명객으로 245 | 해피 엔딩 '로미오와 줄리엣' 253

5장^{1985~1998} '6월 민주항쟁'이 준 선물

김대중은 '가택 연금 중' 259 | '1980년대 아이들'과 권인숙 265 |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270 | 투사가 된 어머니들 277 |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놓쳐버리다 280 | 16년 만의 의사당 286 | 가정의 민주화, 가족법 개정 289 | 3당 합당, 야당의 길 293 | 1992년 대선, 정계 은퇴 298 |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서 302 | 정계 복귀를 반대하다 307 | 꿈은 이루어진다 311

6장^{1998~2008} 푸른 기와집에서의 5년

빈 공간에서 출발하다 319 | 가난한 제2부속실 324 | '국민의 정부', 여성 약진 328 | 옷에 얹힌 이야기 331 | 6·15, 남북의 감격적인 만남 335 | '노벨 평화상'을 받다 343 | '사랑의 친구들'과 '여성 재단' 351 | 티타늄 다리, 애덤 킹과의 사연 359 | 소년원을 보듬다 364 | 엘리너에서 로라까지 369 | '주여, 저희가 교만했습니까?' 373 | 동교동으로 돌아와서 379